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시마무라 타카시*

안중환 번역**

몽골어 성서 번역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할 경우, 우리는 먼저 방언이나 문자 개혁과 관련된 몽골어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어에는 방언이 많다. 각 방언들 사이에는 발음이나 어휘를 달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까지 다른 방언도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유럽 지구에 사는 칼무익 족은 토도 문자라는 특수한 문자를 1600년대 이후 계속 사용해 왔다. 게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몽골 민족은 러시아, 몽골, 중국이라는 세 나라로 분단되고, 문자는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 맞춰 바뀌게 되었다. 러시아(구,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30년대에 러시아 소수 민족의 문자를 키릴 문자로 바꾸면서, 그곳에 살던 몽골계 민족인 브리야토인과 칼무익인의 문자도 바뀌게 되었다. 1946년에는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몽골(당시의 몽골인민공화국)의 공용 문자가 키릴 문자로 바뀐다. 당시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중국도 중국에 사는 몽골 족의 문자를 키릴 문자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1960년대에 시작된 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해 실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 안의 몽골 족은 현재까지 계속 세로로 내려쓰는 전통적인 몽골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몽골국의 키릴 문자와 러시아의 브리야토 및 칼무익의 키릴 문자는 각각 표기법이나 문자 모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호 호환성도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몽골어 성서 번역은 아래와 같은 방언과 문자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몽골의 문어	(몽골 문자)
칼무익어	(토도 문자)
현대 할하어	(키릴 문자)
브리야토어	(키릴 문자)

이상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몽골어 성서 번역의 역사를 본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해설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르기로 한다.

* 몽골 선교사

** 한남대학교 일문과 교수, 일본어학

몬테 코르비노역

역자 몬테코르비노(Giovanni da Montecorvino) (1246-1328)
 내용 신약성서 시편
 발행년 14세기
 문자 불명

1294년, 가톨릭 수도사인 몬테코르비노가 몽골제국의 수도인 대도(현재의 북경)에 파견되었다. 그가 1305년 1월에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는 이미 늙어 백발이 되었다. 이것은 힘든 노동과 고생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58세이니까. 나는 이미 달단어(韃靼語: 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다. 그리고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을 그 언어로 번역했다. 그 번역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¹⁾

이것이 몽골의 성서 번역으로서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성서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이 되거나 유통이 되었는 지 불분명하다. 또한 ‘달단어(타타르어)’라는 것이 몽골어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 편지 이외의 증언은, 1335년 로마 교황 베네딕트 8세의 편지 가운데, 그 번역이 중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기록뿐이다. 따라서 이 번역에 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 그로부터 약 500년 동안 성서 번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그 사이에 몽골 민족은 티베트 불교에 전면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슈미트역

역자 이삭 야곱 슈미트(Isaak Jacob Schmidt)(1779-1847)
 내용 사복음서 사도행전
 발행년 1815-1827년
 문자 칼무익어, 몽골의 문어

1) 沢崎堅造「新の墓にて」188-189. 이것은 Marshall Broomhall, *The Bible in China*, 31-32를 인용 번역한 것. “I am now old and am become white, more from toils and troubles than from age, for I am fifty-eight years old. I have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Tatar language and character, which is the usual language of the Tatars; and I have now translated in that language and character the whole New Testament and Psalter, which I have had written in their fairest writing.”

발행 영국성서공회, 러시아 성서협회



그림 1 슈미트역 마가복음 1장

네덜란드인으로서 몽골 학자였던 모라비아파 이삭 야곱 슈미트 박사는, 러시아제국 페텔부르그에서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그는 1809년 마태복음을 칼무익 방언으로 번역, 1815년에 영국성서공회(BFBS)에서 출판한다. 그 후 1827년에는 똑같은 칼무익 방언의 신약성서를 영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다. 그와 더불어 바도마(Badma)와 노무토(Nomtu)라는 두 명의 브리야토 몽골인의 도움을 받아, 1819년에 몽골의 문어로 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1821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1823년에 사도행전을 러시아 성서협회에서 출판했다.

이 문서의 형식은 옆으로 길며, 아래위로 열어나가는 형태이다.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없다. 번역은 아주 오래된 문어체이며, ‘하나님’의 역어로 ‘Dehido (degedu)’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단어는 형용사로 ‘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스완, 스탠리브래스역

- 역자 스완(William Swan) (1791-1866),
스탠리브래스(Edward Stallybrass) (1794-1884)
- 내용 성서 전권
- 발행년 1833-1846년
- 문자 몽골의 문어
- 발행 영국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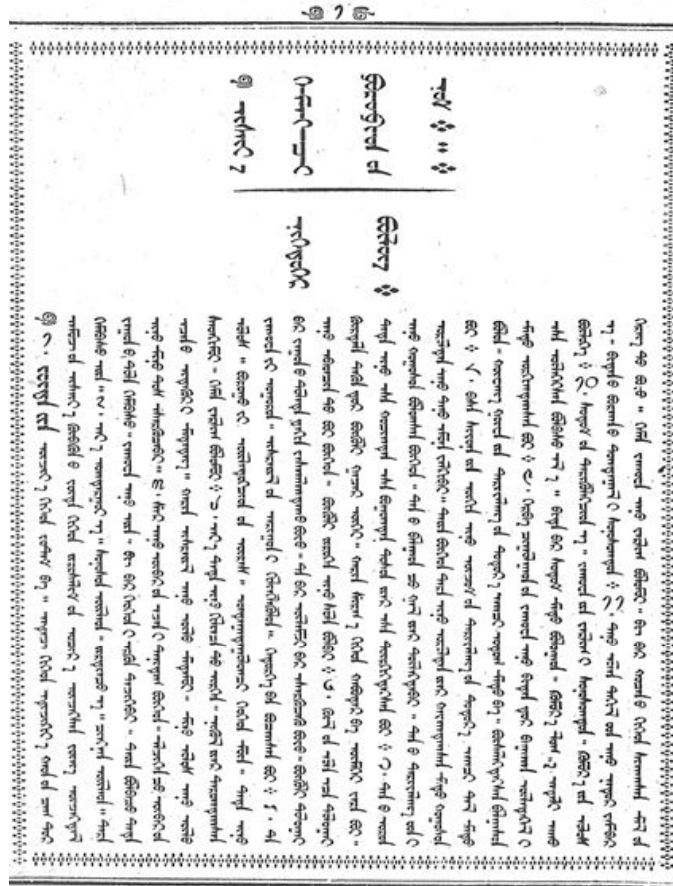


그림 2 스완, 스텔리브래스역 이사야서 1장

런던 선교협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선교사인 스텔리브래스와 스완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의 브리야토에 있는 세렌긴스크(Селенгинск)에서 1817년부터 전도사역을 시작했고, 1823년부터는 몽골의 문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번역은 구약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슈미트 박사가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1833년에 창세기를 출판했으며, 그 후 1836년부터 1840년에 걸쳐 구약성서 전체를 분책해서 번역 출판했다.

이어 신약성서에 대한 번역도 이루어졌으나, 출판 직전인 1845년 러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스텔리브래스와 스완은 해외로 추방을 당해, 영국으로 귀국했다. 영국에서 신약성서를 조판하려고 했지만, 당시 영국에는 몽골어 활자가 없던 탓에 몽골어와 비슷한 만주 활자를 전용해 1846년에 신약성서를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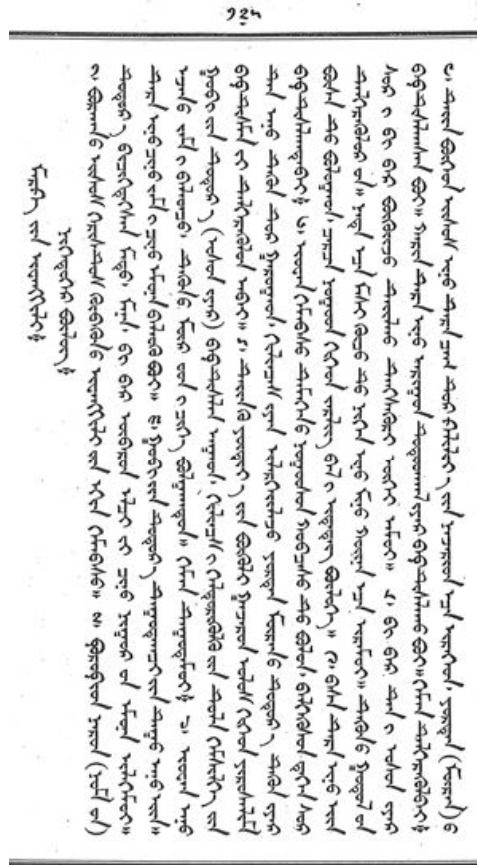


그림 3 스완, 스틸리브래스역 마가복음 1장

번역의 특징은, 아주 엄밀하게 기술되었다는 점과, 문체가 아름답다는 점이다. 구약에 대해서는 페테르부르크의 슈미트 박사가 번역을 검증하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분책 각각의 머리말에 러시아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번역어로는 ‘Breeca (burhan)’이 사용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1833년 출판된 창세기 초판을 보면 ‘Breeca (burhan)’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도 한 단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몽골문자에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God과 god을 구별하기 위해 큰 활자를 쓴 것이다. 그러나 1836년 이후의 판에서는 보통 크기의 활자가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음역한 단어가 많다는 점이다. ‘예언자’를 ‘Qroqioa (forofid)’, ‘천사’를 ‘feekki& (anggil)’, ‘안식일’을 ‘Sebboa (sabad)’, ‘복음’을 ‘fiweekkill (iwanggili)’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신약성서나 창세기, 잠언, 요나 등은 뒤에 몇 번인가 재판되었지만, 구약 전체가 재판된 일은 없었다. 따라서 구약에 관한 한, 2000년에 위원회역 성서가 출판되기까지 몽골어로 출판된 유일한 성서인 셈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합본되어 출판된 적도 없었다.

에드킨스역

역자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1823-1905),
 요셉 셰르세프스키(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1831-1906)
 내용 마태복음
 발행년 1873년
 문자 할하어(몽골 문자)

조셉 에드킨스 박사와 요셉 셰르세프스키 주교가 스완, 스탈리브래스의 번역과 중국어역, 만주어역을 토대로 번역한 것이며, 할하 방언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만이 번역되었고 1873년에 출판되었다.

포즈도네프역

역자 알렉세이 포즈도네프(Алексей Матвеевич Позднеев) (1851-1920)
 내용 사복음서
 발행년 1887년
 문자 칼무익어(토도 문자)

러시아의 몽골학자인 알렉세이 포즈도네프가 칼무익어로 번역한 것으로, 사복음서이며 1887년에 출판되었다.

체스토킨역

역자 체스토킨(Честокин)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발행년 1909-1912년
 문자 브리야토어(키릴 문자)
 발행 영국성서공회

러시아 정교도인 체스토킨이 번역한 것으로, 브리야토어로 번역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몽골 문자가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야토어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1909년에는 마태복음이, 1912년에는 마가복음이 BFBS에

의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Irkutsk]에서 출판되었다.

라르손 개역

역자 F.A. 라르손(Frans August Larson)(1870-1956)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발행년 1913년
 문자 몽골의 문어
 발행 영국성서공회



그림 4 라르손역 마가복음 1장

스웨덴 사람 F. A. 라르손은 1893년부터 몽골에 체재하면서, 1911년에 스완, 스탠리브래스가 번역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개역하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1913년 BFBS에 의해 분책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번역문은 기본적으로 스완, 스탠리브래스역에 근거를 두지만, ‘예언자’는 ‘fsl

foijiKlkl (esi ujigulgchi)', '천사'는 'Sekigolsoa (sahigulsun)', '안식일'은 'fedilT fdo* (adil_a edur)', '복음'은 'blie* oa Medehl (baiar-un medege)' 등, 음역되었던 단어들이 몽골어 단어로 고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번역은 1940년대까지 여러 번 재판되었다.

군젤역

역자 스튜어트 군젤(Stuart Gunzel)
 내용 신약성서
 발행년 1953년
 문자 몽골의 문자
 발행 Hongkong Bibl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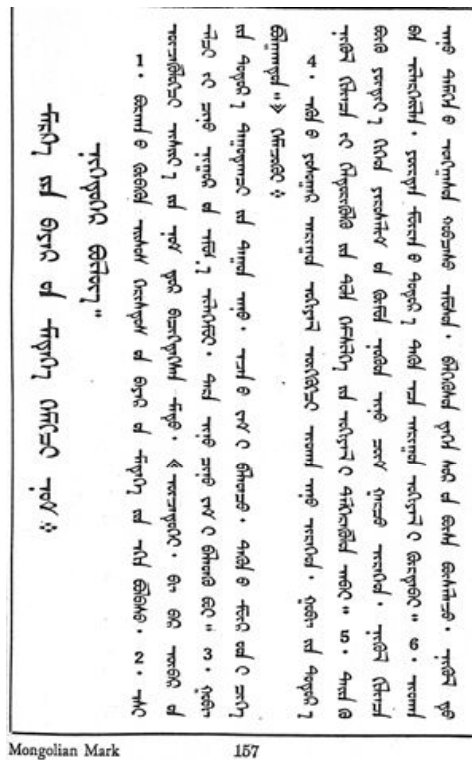


그림 5 군젤역 마가복음 1장

스칸디나비아 아라이언스 미션의 선교사 스튜어트 군젤은 1933년부터 중국의 내몽골에 체재하면서, 1935년에 신약성서를 개정하기 시작했다. 이 일에는 선교사 네 명과 내몽골인 세 명이 가담했으며, 홍콩에서 번역해서 1949년에 완성하여, 1953년에 Hongkong Bible House에서 출판하였다. (출판물 자체에는

195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번역은 스완, 스텔리브래스역을 개역한 것으로, 우선은 신약 전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영어인 RSV와 대조해서 만들었다. 현대 영어역 몇 개와 스웨덴어, 일본어, 중국어, 티베트어역 성서도 참고로 했다. 원문 해석은 RSV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리스도의 신성 등에 대해서는 다소 허술하게 기술되어 있다. 편집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전의 번역에서는 절 번호 표시로 티베트 숫자가 사용되었던 것이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자 중 하나인 A.W. 마틴슨(Marthinson)의 보고 내용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The Bible Translator*지 1954년 제5권에 게재되어 있다. 이것은 1980년대까지 수차례 재판되었다.

기벤즈역

역자	존 기벤즈(John Gibbens)
내용	신약성서
발행년	1990년
문자	할하어 (키릴문자)
발행	세계성서공회연합회 (UBS)

1972년 영국인 선교사 존 기벤즈가 번역을 시작해서, 1990년에 완성한 ‘신약성서(Шинэ Гэрээ)’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의해 홍콩에서 출판되었다. 이 번역은 몽골국의 공용 문자인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우선, 종교언어 신학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세상 주인(Ертөнцийн Эзэн)’으로, ‘교회’를 ‘기독교인들(Христэд итгэгчид)’로, ‘예배하다’를 ‘존경하다(хүндэтгэх)’로, ‘기도하다’를 ‘세상의 주인과 이야기하다(Ертөнцийн Эзэнтэй ярих)’로, ‘사도’를 ‘대표자(төлөөлөгч)’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번역의 근본 방침은, 거의 모든 문장에 걸쳐, 원문의 문장이나 단어에는 전혀 얽매이지 않고 의역 형태로 번역한다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번역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마 16:18

“내가 당신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소. 나는 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세상 주인의 엄청난 나라를 세우겠소. 베드로여. 당신은 그 건물의 초석과 같습니다. 가장 악한 영도 이러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²⁾

요 1:1 “세상의 주인과 인류 사이를 중계해 주신 그 사람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주인과 함께 늘 존재했고, 실은 이 세상의 주인이었다.”³⁾

요 14:6 “나는 아버지인 세상의 주인이 있는 곳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길은 나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인 세상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⁴⁾

고린도전서 10:1 같은 경우는 이 한 절만으로 다음과 같이 아주 길게 번역되어 있다.

고전 10:1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인이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지도자 모세와 함께 광야를 이동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직후,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주인은 그들 주변에 계속 짙은 안개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 안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며칠이 지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곳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밤새 세차게 불어, 바닷물을 날려버리더니, 한 쪽에 마른 땅이 생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군대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 후 그들이 광야로 나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세상의 주인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모세에게 바위 하나를 치도록 하셔서,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자 샘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⁵⁾

-
- 2) 원문 Би чамд Пэтр гэдэг нэр өгье. Би өөртөө итгэсэн хүмүүсээр барилга барихын адилаар Ертөнцийн Эзэний ер бусын улсыг байгуулна. Пэтр э Чи тэр барилгын суурийн чулуу мэт ажээ. Адгийн муу ёрын сүнс ч ийм хүмүүстэй тэмцээд дийлэхгүй
 - 3) 원문 Ертөнцийн Эзэн ба хүн төрөлхтнийг хооронд нь зуучилж өгсөн тэр хүн орчлон дэлхий бий болохоос өмнө оршин байжээ. Тэр хүн Ертөнцийн Эзэнтэй үргэлж хамт оршин байсан бөгөөд үнэн хэрэгтээ энЕртөнцийн Эзэн билээ.
 - 4) 원문 Би бол Ертөнцийн ЭзэЭцэг тийш очих ганцхан зам мөн. Хүний амьдралын цорын ганц үнэн зөм бол би мөн. Хүн зөвхөн надаар дамжин Ертөнцийн ЭзэЭцгийг минь таньж чадна. Өөр ямар ч аргаар түүнийг мэдэж чадахгүй.
 - 5) 원문 Хайрт нөхөд минь э Би та нарт нэгэн чухал юм сануулъя. Эрт дээр үед Израйльчууд Египетээс чөлөөлөгдсөн юм. Тэд Есүст итгэгч бидний адилЕртөнцийн Эзэний сонгож авсан

이런 점에서 이 번역은 ‘성서 번역’이라기보다 ‘성서 이야기’라고 불리야 할 만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몽골어 번역 성서와도 전혀 관련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번역은 예배나 성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번역은 못된다. 그 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져, 1990년대 후반에 개인이 출판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용어와 번역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기타무라역

역자 기타무라 아키히데(北村彰秀)
내용 신약성서
발행년 1998년
문자 할하어 (키릴 문자)

일본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교단 선교사인 기타무라 아키히데 씨가 중심이 된 번역으로 1998년에 출판된 신약성서이다. 키릴 문자로 된 현대어이다.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나님’에는 ‘Бурхан(Burh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다만 용어 전반에 이런 독자적인 번역이 사용되고 있어, 교회 전체에는 수용되지 못했다. 2005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는데, 개정판의 용어는 현재 몽골의 모든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хүмүүс байсан учраас өвөг дээдэмаань мөн. Тэгээд тэд Египетийн боолчлолоос гараад удирдагч Мүшэхийн хамт цөлд нүүдэллэн явсаар одоогийн энэ Израйль улсад ирж суурьшсан байна. Тэднийг Египетээс гарсны дараахан Египетийн цэргүүд барьж авахаар хойноос нь хөөжээ. Зугтаж буй Израйльчуудыг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Ертөнцийн Эзэн дэргэд нь үргэлж өтгөн үүл манан үүсгэв. Ертөнцийн Эзэн үргэлж дэргэд нь хамт байгааг тэр үүл манан харуулдаг байжээ. Египетээс гараад хэд хоносны дараа Израйльчууд Улаан тэнгист тулж очоод хойноос нь хөөх цэргүүдээс зугтах газаргүй боллоо хэмээн бодоцгоов. Гэтэл нэгэн удаа хүчит салхи шөнөжин салхлахад тэнгисийн ус хуйларч, хэсэг хуурай газар үүсгэж, Израйльчууд тэр хэсгээр явсаар тэнгисийг гаталж, Египетийн цэргүүдээс зугтаж одов. Дараа нь тэд цөлд нүүдэллэж ирээд идэх хоолгүй болоход нь Ертөнцийн Эзэн маан болон бөднө шувуудыг тэнгэрээс буулган өгч, уух усгүй болоход нь нэгэн хадыг цохихыг Мүшэхэд зааж өгч, Мүшэх нөгөө хадыг таягаараа цохиход булгийн ус ундарч, Израйльчууд ундаалах болжээ.

번역위원회역

역자 몽골어 성서 번역 위원회(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내용 성서 전권

발행년 2000년

문자 할하어 (키릴 문자)

1993년 11월 몽골 국내에서 성서 번역에 대한 기운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4년 봄 ‘몽골어성서 번역위원회(MBTC)’가 선교사들과 현지 신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교회와 교파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선교사가 참가했다. 그리고 1996년 가을에 신약성서가 먼저 출판되었고, 2000년에는 성서 전권이 출판되었다.

МАРК 1

50

МАРК

1 [Бурханы Хүү] Есүс Христийн сайн мэдээний эхлэл.
2 Эш үзүүлэгч Исаиагийн номад бичигдэхдээ

«Харагтун. Би Чиний өмнө замыг чинь бэлдэх элчээ илгээнэ.

3 Цөлд хашхирагч нэгний дуу "ЭЗЭНий замыг бэлтгэгтүн, Түүний замыг шулуун болгогтун" гэнэ»

гэсэнчлэн, 4 баптисм хүртээгч Иохан цөлд ирж, нуглийн уучлалын төлөөх гэмшлийн баптисмыг тунхаглаж байв. 5 Бүх Иудей нутгийнхан, Иерусалимын бүх хүмүүс Иохан уруу очиж нүглээ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Иордан голд түүнээс баптисм хүртэж байлаа. 6 Иохан тэмээний ноосон хувцас өмсөж, суран бүс бүсэлжээ. Тэр царцаа, зэрлэг зөгийн балаар хооллодог байжээ. 7 Тэр тунхаглаж

—Надаас хүчирхэг Нэгэн араас минь ирж байна. Би доош бөхийж, Түүний шаахайн сурыг тайлах нь зохисгүй. 8 Би та нарт усаар баптисм хүртээсэн. харин Тэр та нарт Ариун Сүнсээр баптисм хүртээнэ гэв.

9 Тэр өдрүүдэд Есүс Галилын Назар хотоос ирж, Иордан голд Иоханаас баптисм хүртжээ. 10 Голын уснаас гарч ирсэн тэр даруй тэнгэр заагдан, Сүнс тагтаа мэт

Өөр дээр нь буухыг Есүс үзэв.

11 Тэнгэрээс дуу гарч, —Чи Миний хайртай Хүү. Чамд Миний таалал оршдог хэмээв.

12 Тэр даруйд Сүнс Есүсийг цөл уруу явуулав. 13 Есүс Сатанд соригдон цөлд дөч хоног байв. Тэнд Тэр зэрлэг амьтдын хамт байсан бөгөөд тэнгэр элч нар Түүнд үйлчилж байлаа.

14 Иоханыг хоригдсоны дараа Есүс Галиад ирж, Бурханы сайн мэдээг тунхаглан,

—15 Тэр үе биеллээ оллоо. Бурханы хаанчлал ойрхон байна. Гэмшиж, сайн мэдээнд итгэгтүн гэж байлаа.

16 Есүс Галил нуурын эргээр явж байхдаа нуурт тор тавьж буй Симон, Симоны дүү Андрей нарыг харав. Тэд загасчид ажээ. 17 Есүс тэдэнд

—Намайг дага. Би та нарыг хүмүүсийн загасчид болгоё гэж айлдав. 18 Тэд тэр даруй тороо орхиж, Түүнийг дагалаа. 19 Тэр жаахан цааш яваад Зебедеен хүү Иаков, түүний дүү Иохан нарыг завин дотроо тороо сэлбэж буйг харав. 20 Тэр даруйд Тэр тэднийг дуусгав, тэд завинд эцэг Зебедеегээ хөлсний ажилчдын хамт орхиж, Есүсийг даган одоцгоолоо.

21 Тэд Капернаумд ирэв. Амралтын өдөр Есүс даруй синагогт ороод сургаж эхлэв. 22 Хүмүүс

그림 6 번역위원회역 마가복음 1장

번역 방침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면서, 몽골어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을 목표로 한 후,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영어 번역인 NIV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고, NASB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을 지향했다. 번역 용어는 모든 교

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Бурхан (Burhan)’을 사용했다.

사용된 문자는 현재 몽골국의 공용 문자인 키릴 문자이고, 문장은 현대어이다. 이 번역이 몽골국의 표준 성서가 되었다. 신구약성서가 몽골에서 발매된 첫날, 재고 10,000부가 그 날 안에 품절되는 일이 벌어졌다. 번역위원 한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창고에 들어가 재고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활의 아침 예수님 무덤 앞에서 있던 베드로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2006년이라는 시점에서 번역·출판된 유일한 신구약성서로, 초판 이래 수만 부의 신구약성서, 그리고 수만 부의 신약성서가 계속 출판되고 있다.

그 외의 번역

이상 기술한 것 외에도, 몽골어로 출판된 성서가 몇 개 더 있지만, 그것들은 성서의 한 부분만 번역된 것들로, 나중에 본격적인 번역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 그룹에 합류됨으로써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지 외국어 성서를 현지의 신자에게 넘겨주면서 번역을 시킨 후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출판된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질이 아주 나빠서, 신자나 교회가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다.

지금도 역시 몽골어의 여러 방언으로 성서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것은 사회적 정세로 인해 그 일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지만, 언젠가는 사용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몽골 민족에 대해 영원하신 구원의 손을 계속 내밀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깨우시고, 전 세계에 그 종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번역하게 하셨다. 모든 번역은 이전 사람들의 업적 위에 이룩된 것으로 완전히 독자적이거나 새로운 성서 번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몽골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읽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직접 200년 전에 몽골 민족의 사이에서 시작하신 번역 작업의 열매인 것이다.

<주요어>(Keyword)

키릴 문자, 몽골어 성서, 몽골어 신약전서, 새 몽골어 역본, 몽골어 성서 번역, 몽골어 성서 번역 위원회

Cyrillic alphabet, *Mongolian Bible*, *Mongolian New Testament*, *New Mongolian Version*, *Mongolian Bible Translation*,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참고문헌>

『蒙古伝道と蒙古語聖書』, 澤崎堅造 (さわぎきけんぞう), 東亞人文學報, 1945
(Reprint, 新の墓にて [あらたのはかにて], 未來社, 1967)

Сазыкин, А. Г., *Каталог монгольских рукописей и ксилографов;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веде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Том I.* Наука, 1988.

Marthinson, A. W., "The Revision of the Mongolian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5 (1954), 74-77.

Bawden, C. R., *Shamans, Lamas and Evangelicals; The English Missionaries in Siberia*, Routledge & Kegan Paul, 1985.

Larson, Frans August, *Larson: Duke of Mongolia*, Little, Brown, and Company, 1930.

Kara, György, "Reading a New Mongoli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Mongolian Studies*, XX. The Mongolia Society, 1997.

Kemp, Hugu P., *To Feel the Spirit; A History of the Mongolian Bible*, 1997.

Broomhall, Marshall, *The Bible in China*, The China Inland Mission, 1934.

Gunzel, Stuart and Hoke, Donald E.,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in The Church in Asia*, Moody Press, 1975.

<Abstract>

History of Mongolian Bible Translation

Rev. Shimamura Takashi

The Mongolian Bible was translated into many dialects and characters. This paper has made a timeline review about the history of Mongolian Bible translation. In 1294, there was the “New Testament with Psalms” in Tatar translated by the Catholic monk, Giovanni da Montecorvino (1246-1328), but it no longer exists now. Dr. Isaak Jacob Schmidt (1779-1847) translated the Gospel of Matthew into the Kalmykia (Калмыкия) dialect in 1809, and this Scripture was published by the BFBS in 1815. Since then, the New Testament in the same Kalmykia (Калмыкия) dialect is published by the BFBS in 1827. Along with its publication, the Bible Society in Russia published the Gospels of Matthew and John in literal Mongolian in 1819, and the Gospels of Mark and Luke in 1821, and the Acts in 1823. Edward Stallybrass (1794-1884) and William Swan (1791-1866) started translating the Bible into literal Mongolian from 1823, and published the Genesis in 1833. After that, they have translated and published portions of the whole Old Testament from 1836 to 1840. Stallybrass and Swan appropriated the Manchurian characters that were similar with the Mongolian ones and published the New Testament in England in 1846. Dr. Joseph Edkins (1823-1905) and Bishop 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 published their translation of the Gospel of Matthew in 1873. The four Gospels translated by Алексей Матвеевич Позднеев (1851-1920) into the Kalmykia (Калмыкия) were published in 1887. There is also the Buryat translation by the Russian Orthodox, Честокин, transcribed with Cyrill characters. The Gospel of Matthew was published in 1909, and the Gospel of Mark in 1912 in Irkutsk, Russia. F.A. Larson (1870-1956) revised the four Gospels and the Acts translated by Swan and Stallybrass, and his work was published as individual volumes of each book by the BFBS in 1913. Stuart Gunzel revised the New Testament and the Hongkong Bible House published it in 1953. (The imprint page of the published copy states the publication year as 1952.) The New Testament (Шинэ Гэрээ) which John Gibbens finished translating in 1990 was 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in Hong Kong. This translation uses the Cyrill characters, the national character of Mongolia for the transcription. Then, there is the New Testament that was translated by the team headed by Kitamura Akihideo and published in 1998. This is a New Testament translated into contemporary Mongolian using the Cyrill characters. The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 first published the New Testament in the fall of 1996, and then published the whole Bible in 2000.